

<http://dx.doi.org/10.17703/JCCT.2022.8.4.61>

JCCT 2022-7-8

## ESG와 기업권력의 문제 및 사회적 책임

### ESG and Corporate Power Issues and Social Responsibility

이기흥\*, 이준호\*\*, 최유화\*\*\*

Lee Kiheung\*, Lee Junho\*\*, Choe Yoowha\*\*\*

**요약** 기업의 규모가 증대하면서 기업은 사회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반면 자신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기업행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거대기업은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무책임한 사회조직으로 비난받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배경으로서 ESG와 기업권력과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 기업과 사회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에 대해 연구한다.

**주요어** : ESG, 기업권력, 사회적 책임, 윤리적 투자, 지배구조

**Abstract** As corporations grow in size, corporations exert a very wide influence on society, but on the other hand, as they fail to take responsible corporate actions to use their influence, giant corporations are often criticized as irresponsible social organizations that cause great social problems.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 between ESG and corporate power as a fundamental background that causes social problems related to corporate activities, and studi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sues that have been traditionally discussed in the business and social fields.

**Key words** : ESG, Corporate Power, Social Responsibility, Ethical Investment, Governance

#### 1. 서론

오늘날 기업들은 우리사회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대기업들의 무책임한 기업행동은 사회적 비난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인도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유니온 카바이트사의 보팔 참사사건, 미국 쓰리마일 핵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건, 알래스카 부근 해역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킨 엑손사의 유조선 침몰 사건, 국유화를 시도하던 칠레의 아엔데 정권을 전복시키려 했던 다국적 기업 ITT사 사건 등은 이러한 거대기업들의 무책임한 기업행동의 표본이다.

따라서 기업권력이 증대됨에 따르는 사회적 영향이 확대됨에 비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회원,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제1저자) Received: May 19, 2022 / Revised: June 21, 2022

\*\*정회원,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저자) Accepted: July 2, 2022

\*\*\*정회원,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조교수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paulchoe@kgu.ac.kr

접수일: 2022년 5월 19일, 수정완료일: 2022년 6월 21일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onggi Univ, Korea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2일

## II. 기업권력의 증대와 사회적 영향 확대

### 1. 기업권력의 증대

기업은 사회의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정의 단계에 따라 성장·발전했다. 그 출현 배경을 보면 첫째, 산업혁명과 대량생산체제의 확립은 거대기업의 출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산업혁명으로 상업자본은 산업 자본화하게 되었으며, 기업의 대량생산체제의 일반적인 생산양식으로 거대기업의 토대를 구축하였고, 후기산업화시대에 이르러 거대기업은 사회의 경제적 중심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기술영역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1]

둘째, 거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한 일반적인 환경적 조건들은 풍부한 자연자원, 기업활동에 대한 호의적인 사회·정치사적 환경, 폭발적인 인구성장과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 운송 혁명, 지역 간 또는 국가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통신혁명, 기술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거대기업의 규모는 연매출액, 자산, 연간이익, 종업원 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다국적기업으로 불리는 거대기업들은 군소국가의 국민총생산보다 많은 매출액을 기록하거나, 혹은 대도시의 인구와 맞먹는 종업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 규모의 확대는 단순히 외형적 크기의 증대만을 의미하지 않고, 기업활동의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을 초래하였고, 사회의 여러 부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으며, 경제분야를 떠나 사회·문화·기술·정치 분야로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하였다.

### 2. 거대기업의 사회적 영향

역사적으로 출현한 사회조직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정부조직이다. 정부는 그 역할과 기능의 확대에 따른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지녀왔으며, 산업 이명 이후 성장한 거대기업들은 정부조직이 행사해 온 사회적 영향력의 많은 부분을 이양받게 되었다.

기업의 대규모화에 따른 영향력의 증대는 자본주의 경제발전 과정상 필연적인 사회 현상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거대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은 기업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이득과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은 이미 사회 공공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신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정당성을 갖춘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 (1) 사회적 이득

거대기업의 출현으로 인한 사회적 이득은 첫째,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통해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증대시킨다. 즉 사회적으로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고용안정은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소득을 보장한다.

둘째, 국제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약소국가는 외국자본의 지배를 초래할 수 있으나, 자국 내의 거대기업의 존재로 인하여 외국자본에 의해 국가 주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진다.[2]

셋째, 납부세금의 증대와 직접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시킬 수 있다. 국가위주의 사회복지의 구현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나, 기업활동을 통한 사회복지에의 참여는 사회복지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다. 즉 기업활동의 결과로서의 세금 납부와 복지재원출연, 교육·예술·문화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이 있다.

#### (2) 사회적 손실

거대기업의 출현으로 인한 사회적 이득에도 불구하고 거대기업화에 따른 사회적 손실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독점적 지위가 형성되어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효율적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즉 거대기업화를 통해 원가이하로 시장을 통제함으로써 시장의 독점화 현상 내지 나아가 자유시장의 경쟁왜곡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전체적으로 사회적 부의 분배과정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거대기업화에 따른 자본이 일부 소유주 가족에게 편중되어 계층간 위화감, 상대적 박탈감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분배 메커니즘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공공정책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민주적 대의과정의 변질을 초래할 수 있다. 즉 거대기업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입법·신규사업허가를 목적으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영향력 증대는 다원사회의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3]

### III. 거대기업의 기업권력

기업권력(corporate power)이란 기업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의미한다. 기업은 사회의 행동규범이나 태도, 가치관, 분위기 등이 기업자신이 원하는 바에 일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며, 이와 같은 기업권력은 기업의 거대화와 함께 더욱 명확해지고 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권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 1. 경제적 권력

경제적 권력이란 기업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를 통해 경제적 활동이나 사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경제활동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회적 효용과 부를 증가시키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권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제적 권력은 기업의 경제활동인 새로운 공장신설, 지역주민들에게 노동의 기회제공, 상주인구를 증가시키며 도시화 촉진, 투자활동 및 납세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이라는 기업활동을 통하여 수반되는 기업권력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적 권력은 사회로부터 기대되는 중요한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창출된다.[4]

즉 거대기업들은 에너지, 철금속, 각종 수송수단, 방송, 및 금융기관 등의 공공재를 생산하므로써 경제적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 2. 사회 문화적 권력

사회 문화적 권력이란 기업이 사회일반인이나 다른 사회기관들의 문화적 가치나 규범, 관습, 라이프 스타일 등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서비스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회적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수동세탁기 대신 자동세탁기를 생산하는 기업활동은 가정주부들의 세탁문화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기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기업이 사회에서 담당해야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즉 의료보장제도, 연금제도, 개인상담제도, 지역사회 환경, 비영리단체에의 기부, 각종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및 참여 등을 통해서 기업의 활동영역이 경제적 범위를 초월하여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까지

다다르게 뒹으로서 수반되는 권력을 의미한다.

#### 3. 정치적 권력

정치적 권력이란 기업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책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 정책과 법률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거대기업들이 정부기능의 일부분을 직접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다원사회에서의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이익집단과의 상호연계 패턴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 이유는 기업 목표와 이익집단 목표가 서로 일치할 때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4. 기술적 권력

기술적 권력이란 기술개발 및 전체산업사회의 기술의 특징과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술적 권력은 국가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의 대부분이 이들 거대기업들에 의해 수행됨으로서 수반되는 권력이다.

이와같은 기술적 권력은 거대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연구개발이라는 긍정적인 관점과 기업의 대규모화가 오히려 새로운 기술발전 및 혁신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관점도 있다. 즉 이익추구 동기에 의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술개발을 가로막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들만을 선택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원의 사용이나 지역개발, 자연환경 등과 같은 물리적·생태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권력과 기업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권력이 있다.

### IV.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 사회적 책임의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사회일반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기업행동의 규범적 체제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기란 매우 곤란하나, 그러나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몇가지 정의를 살펴본다.

첫째, 우리사회의 목표나 가치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그러한 의사 결정을 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인의 의무이다.[5]

둘째,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관점 및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지배하는 윤리원칙의 관점에서 생각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윤리의 준수가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셋째, 기업의 사회에 대한 경제적 및 법률적 의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넘어 서서 전체사회에 대한 책임까지를 의미한다.

넷째, 주어진 특정 시점에서 사회가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윤리적 및 재량적 기대를 모두 포함한다.

다섯째, 개인·조직·사회제도들간의 상호의존성의 인식과 그러한 인식을 도덕적·윤리적 경제적 가치의 틀 내에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다.

여섯째, 경제적·법률적인 필요요건을 넘어서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활동을 의미한다.

위의 정의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사회일원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기업행위의 규범적 체계로 요약될 수 있다.

2. 사회적 책임론의 대두배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20세기에 들어와 세계경제를 주도했던 미국을 배경으로 대두되었다. 즉 거대기업화와 사호, 경제적 영향을 일찍부터 경험한 미국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당시 미국의 기업들은 트러스트와 카르텔을 통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 복지국가 자본주의 개념이 등장함으로써 정부역할이 반독점법과 다른 정부규제들을 통해서 기업의 힘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학문적으로 사회적 책임은 1953년 보웬(HRBowen)의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책이 출간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재벌기업들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학계, 언론계,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3.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계약관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대두로 기업과 사회간 상호관계의 양상은 크게 변화된다. 즉 과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기업과 사회간 상호관계에 주로 초점을 두던 것이 확장되어 사회적 측면에서의 상호관계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기업과 사회간에 형성되는 사회적 계약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를 하나의 계약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첫째, 과거에는 경제 성장이 사회적인 모든 진보의 원천과, 둘째, 현재에는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산출 모두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6]

표 1. 기업과 사회간 계약관계의 변화  
Table 1. Changes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companies and society

새로운 계약			
	과거의 계약		
사회적 투입	경제적 투입	경제적 산출	사회적 산출
공기와 물	자본재	제화와용역	공해
노동력의 질	원재료	일자리와 소득	상해 및 질병
노동력의 구성	인적자원	이자와 배당	빈곤과 차별

[표 1]에서 보면 기업은 경제적 향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향상을 위한 책임이 있다는 사고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업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광범위한 책임을 지고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가치의 증진에 더욱 봉사하기를 요청받고 있다.

4. 사회적 책임의 기본원리

사회적 책임의 기본원리는 첫째, 자선의 원리(charity principle)로서 자선의 원리는 부유한 사회구성원은 불우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관점으로서 사회공동체에서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7]

둘째, 수탁의 원리(stewardship principle)로서 수탁의 원리는 경영자에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자원이 수탁된 것이라는 관점이다. 따라서 기업에 맡겨진 다양한 자원을 개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의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본원리

Table 2. Basic Principl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구분	자선원리	수탁원리
정의	기업은 사회의 빈곤한 사람과 집단에게 자발적인 원조를 제공해야 함	공공의 수탁자로 행동하는 기업은 의사결정이나 정책에 의해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고려해야 함
의미	기업의 자선사업, 사회적 선을 고양시키기 위한 자발적 행동	기업과 사회간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많은 사회집단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
사례	기업의 자선기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적 행동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사회적 동반관계	기업전략 수립에서의 이해관계자 접근법 단기의 최대이익보다는 장기의 적정이익 추구

## V. 결 론

거시적 미래지향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기업 자신을 바라보는 진보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는 어떠하여야 하며, 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여야 하며, 이는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들이 사회적 영향이 크게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이 이에 걸맞는 책임있는 기업행동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한 불안정한 제품 공급사례, 허위광고 및 과대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기만사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사례, 기업의 거대화과 함께 사회적 부와 권력의 독점현상의 야기 등은 대표적인 기업의 악영향 사례이다.

모든 기업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소극적 자세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소홀히 한다면, 또한 그 기업에 수반된 권력에 적합한 부여된 책임을 회피한다면 사회로부터 거센 비난과 압력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기업활동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활동에 대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References

- [1] Hyunkyung Yoo;Sungho Lee;Jungmin Nam, The Effect of Consumer s Demand for ESG Management on ESG Management Support, Entrepreneurship & ESG Vol.1 No.2, 2021
- [2] Kyongran Seo, The role of finance to promote ESG management of SMEs, Global Financial Review Vol.2 No.2, 2021
- [3] Wonjae Choi, Education of digital data narrative using ESG concept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23, No.2, 2022
- [4] ESG Handbook [Internet] Available: <https://socialvalue.re.kr/esghandbook/sub02.html>
- [5] Byeongho Oh, Measures to cope with the climate crisis by raising ESG funds using metabuses, KEPAS Vol.30, No. 1, 2022
- [6] Seunghyeog Moon, A Study on Securing Global Big Data Competitiveness based on its Environment Analysi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5 No.2 2019. DOI : 10.24173/jge.2021.07.16.8
- [7] Daehyoungc Cho, “ESG Global Current Status and Cases Studi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2(3), pp. 2651-266, 2021.
- [8] Jeong-eun Park, “Sustainable Management through ESG and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s Strategy to Create Shared Value”,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35, pp.4-22, 2021
- [9] Samjong KPM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e rise of ESG, what should companies prepare for?”, Samjong KPMG Insight, 74, pp. 2-30, 2021.
- [10]Kyuseok Lee(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mproving ESG’s governance and corporate value.”, KERI Brief, 21-03, pp.1-18, 2021.
- [11]Dong-young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SG Evaluation Information and KIS Credit Ratings of Healthy Companies”,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Review, Vol.17, No.3, pp.131-155, 2020.
- [12]Kwang-min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ESG Management on Corporate Value and Cost of Capital”, Ph.D. Paper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p.1-139, 2021.